■ 스포츠

메이저리그, 무관중 속에 '60경기 미니 시즌' 개막

▲ 뉴욕 양키스-워싱턴 내셔널스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경기 전 선수들이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다(위). 다저스구장에 인형 관중이 등장했다. 사진=mbc화면 캡처

코로나19로 개막이 미뤄졌던 메이저리그가 팀당 60경기를 치르는 미니 시즌에 돌입했다. 텅 빈 관중석에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관중석에서 많이 보던 인형 관중도 등장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워싱턴의 홈구장에서 뉴욕 양키스-워싱턴 내셔널스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지난 23일 관중 없이 열렸다. 이 인종 차별 반대 메시지를 전하며 시작됐다.

경기 전 국가 연주가 시작되자 양 팀 선수들은 한쪽 무릎을 꿇고 1·3루 베이스라인을 따라 놓인, 평등과 연대를 뜻하는 검은 줄을 들어 올렸다.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제스처였다. 마운드 위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는 의미의 BLM이 새겼다.

같은 날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경기 전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화상 인터뷰에 응했다.

이날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가 워싱턴 내셔널스에 4 대 1로 6회 강우 콜드 승을 거두었다.

LA 다저스의 홈 개막전에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보던 인형 관중이 등장했다. 개막전 선발로 예고됐던 커쇼는 허리 통증으로 갑자기 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다저스는 숙적 자이언츠에 8대1, 대승을 거두었다.

■ 부동산 칼럼

주택 소유가 많을 때의 과세 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도 대폭 상승한 가운데 몇 년 동안 부동산의 호황으로 에퀴티를 뽑아 다른 집에 투자하는 등 집을 한 채 이상, 여러 채를 소유한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은 정해진 정답이 없고 늘 경기의 흐름에 잘 적응하 며 사고 팔기를 반복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른 최근 10년 동안의 상승세에 힘을 얻어 많은 수익을 얻었다.

집은 물론, 커머셜, 창고까지 수직적으로 오른 그래프를 보면서 사업을 하다 망한 고객분들은 '집에 투자했으면 그나마 형체라도 있는데 비즈니스는 정리할 때 하나도 남은 게 없다.' 며 탄식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진다.

수 년 전 숏세일 잔치가 끝나면서 낮은 가격대에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에퀴티가 많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집을 매매하려 할 때는 우선 수익에 대한 세금 상담을 본인 회계사와 충분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전반적인 세금의 과세 면제 범위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한다.

투자용이었던 집인 경우 몇 년 정도 갖고 있어야 세금을 덜 내는지 혹은 본인들이 다시 들어가 살 경우에는 본 주거주택(Primary Residence Property)으로 해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 거주지가 아닌 임대용으로 분류된 주택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과는 달리 자 소득(Capital Gain)으로 분류돼 총 매매 차익 중 감가상각 비용 (Depreciation)으로 인정 되는 부분은 25%의 세율로, 나머지 부분은 10~20%까지의 자본 이득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

과거에는 주 거주지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을 팔기 전 5년 기간 중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1인 당 양도 차익의 25만불까지는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시엔 최고 50만 불까지도 과세 면제가 가능했지만 지난 2008년에 개정된 주택보조세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의 통과로 주 거주지를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면세 혜택도 처분된 주택이 납세자의 실제 주 거주지로 사용된 실제 기간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게 되었다.

추가로 설명하면 집을 5년간 소유했지만 처음 2년 동안 임대를 주었고 실제 거주 기간이 최근 3년인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60%(3/5 X 100)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나머지 40%는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하도록 되어 예전에 비해 과세 면제 범위 혜택이 많이 줄었음을 감안해서 집을 매매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집주인이 2년 이내 집을 팔 때는 부부합산 50만 불의 면세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3년이 경과할 시엔 싱글로 간주 되니 정해진 기간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ARNIE CHUNG
REDPOINT REALTY
Honored Vice President
(714) 244-780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